노 동 정 책 연 구
2013. 제13권 제4호 pp.87~131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연구논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해야 효과가 있는가?

김 혜 원*

이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와 고용보험 DB 및 HRD-net 자료를 결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고용서비스의 취업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취업확률에 한정하지 않고 구직기간 자료를 이용한 구직해저드 회귀분석 및 일자리의 질을 근속 및 경력기간을 통해 분석하였다. 직업훈련 그 자체를 단독으로 제공할 경우 훈련 미참여자에 비해 취업성과가 낮지만 집중알선과 직업훈련을 결합하거나 집단상담을 결합하는 등 취업능력과 의지를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취업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훈련직종에 따른 취업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며 훈련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용어 : 고용효과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집단상담, 알선, 취약계층

I. 서 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고용서비스 사업이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고용노동부의 저소득 실직

논문접수일 : 2013년 10월 29일, 심사의뢰일 : 2013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2월 12일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hwkim@knue.ac.kr)

계층에 대한 사업과 몇 가지 점에서 차별된다. 첫째는 고용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특징이다.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경험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기존의 고용서비스는 고용센터 내의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하여 구직자의 여건과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첫 한 달 동안 상담원이 수차례 상담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공할 서비스를 기술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한다.

또 다른 차별적 요소는 구직자 측면의 제도 설계이다. 구직자가 취업능력을 향상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에 생계 보장을 위한 수당을 제공한다. 초기 상담 기간 중에는 20만 원을, 직업훈련 중에는 30여만 원의 수당을 제공한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이들에게 개인 성공금을 6개월에 걸쳐 제공하여 구직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셋째는 구인 기업과 관련된 특징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에 집중하여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취약계층 채용보조금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와 무관한 몇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지급하였고 지원제도를 잘 아는 사업주와 구직자들이 주로 활용하였다. 이를 개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및 그에 준하는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만 고용촉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2012년 예산 기준 연간 18만 명이며 투입되는 예산은 2,600억 원이다. 사업이 시작된 2009년에는 참여 인원 9,831명, 예산 123억 원이었는데 3년 사이에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다.[1]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의 서비스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김혜원 외(2009), 이병희 외(2010), 류장수 외(2011), 전병유 외(2012) 등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취업 성과를 담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가 고용서비스의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는바, 고용서비스의

1) 국회예산정책처(2013) 참조.

세부 특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인 고용서비스는 직업훈련인데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수료를 했는지,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직업훈련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훈련 직종을 선택했는지 등이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HRD-net 자료를 취업성공패키지 DB와 결합하여 이러한 특성들이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연구가 갖는 약점은 단순히 취업 여부만을 검토할 뿐 장기적인 취업 성과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단순히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애로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업 성과 역시 단기적인 취업 여부보다는 보다 나은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좀 더 오랜 기간 근속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DB를 취업성공패키지 DB와 연계함으로써 보다 나은 일자리인 고용보험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직업훈련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하였으며 고용보험 일자리의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근속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였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를 설명하고 취업 성과 분석을 위한 계량모형 및 분석에 사용한 변수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취업확률 분석, 구직기간 분석, 근속기간 및 취업기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요약을 담고 있다.

Ⅱ. 선행 연구

본 연구는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가 취업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2]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는 주로 직업훈련을

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약계층의 재통합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 policy)에 대한 연구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 OECD 국가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이 현금보

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특히 직업훈련이 다른 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로 진행되어 직업훈련이 다른 서비스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고용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별 서비스, 특히 직업훈련의 효과만을 검토할 뿐 고용서비스와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여타 고용서비스와의 결합을 했을 경우의 효과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실업자에 대한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는 OECD(1994)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Martin(2000), Martin and Grubb(2001), Kluve (2006) 등에서는 다양한 고용서비스들이 갖는 효과성이 검토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훈련의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알선, 상담 등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는 주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직자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실직자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이병희(2000)이다. 이병희(2000)는 실업자훈련에 참여한 실업자와 참여하지 않은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해저드모형을 사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실직한 이들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3] 분석 결과 실업자훈련 참여가 유의하게 실직기간을 줄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때 직업훈련의 직종은 실직기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채창균 외(2004)는 이병희(2000)와 반대로 비훈련집단에 비해 훈련 참여가 실업자의 재취업확률을 오히려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유경준 외(2008)의 연구에서는 전직실업자 훈련생 그룹과 훈련미참여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는데 훈련생 그룹의 구직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수급권을 가진 이들에 대한 활성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실업부조나 공공부조에 대한 수급권을 갖지 않는 이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내의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취업 성과 문제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의 성과와 통합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류기락(2012)을 참조할 수 있다.

3) 이때 훈련참여자의 구직기간은 실직 이후 취업에 이른 기간 중 직업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이 취업한 일자리의 근속기간에 미친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다. 김미란 외(2009)에서는 실업자 훈련이 아닌 사업주 주도의 재직자 훈련이 재직자의 이직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김미란 외(2009)에서는 재직자 훈련에 참여한 이들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기대근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연구는 주로 고용보험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로서 상대적으로 고용보험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결과를 연구한 것으로는 정원오(1997, 1999), 오영훈(2005, 2006), 김주섭 외(2006), 남재량(2004)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지역의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과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활직업훈련을 주로 분석하고 있는바, 취약계층의 고용성과가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결과와 많은 직업훈련 관련 변수들이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취약계층에 제공된 고용지원서비스 중에서 직업훈련과 다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그 이유는 고용서비스가 통합적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김혜원 외(2009), 김혜원(2010), 이병희 외(201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연구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참여자 특성 및 취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 간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직업훈련을 받은 이들이 다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은 이들에 비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는데 김혜원(2012)에서는 이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김혜원(2012)에서는 201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DB 분석을 통해 직업훈련의 참여 여부가 취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혜원(2012)에서는 직업훈련 참여변수가 내생성을 가질 수 있음을 통제하기 위해 전년도 관할지역 직업훈련 비중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직업훈련 변수의 내생성은 심각하지 않았다. 김혜원(2012)에 비해 본 논문은 우선 자료 측면에서 취업성공패키지 DB

만이 아닌 직업훈련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직업훈련의 특성변수를 풍부하게 추가하였고 고용서비스 관리 변수도 새롭게 구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분석 방법 측면에서 구직해저드와 실직해저드 분석을 추가하여 고용서비스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실직자와 재직자의 직업훈련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특성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업성공패키지 DB에는 직업훈련 세부특성을 분석할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DB에 직업훈련 DB를 연결하여 직업훈련의 세부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의 시간변동변수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지 않고 해저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연구에서는 취업 후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이 미진했다. 김혜원(2012)에서는 취업성공수당 변수를 이용하여 불완전하게 관측한 근속기간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이력 DB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사업장의 근속기간 및 취업 후 1년 동안의 총경력일수 변수를 계산하여 해저드 모형을 분석하였다.

Ⅲ. 자료의 구성 및 방법론

1. 사용한 자료

본 연구는 취업성공패키지 DB, HRD-net의 훈련 정보 그리고 고용보험 DB 중 피보험자 이력 DB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DB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개인 특성 및 각 단계별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성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2년 7월 20일 시점까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의 참여자를 분석하였고 저소득층에 한정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1개월의 제1단계 진단평가단계를 통해 수차례의 심층상담을 직업상담사와 한 뒤 제1단계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직업상담사와 재취업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 이하 IAP)을 수립한다. 재취업활동계획에는 어떠한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훈련이나 일경험 등의 추가적인 고용지원서비스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제3단계 집중취업알선단계로 이행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취업 성과에 어떤 고용지원서비스가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므로 신청은 했으나 진단평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용지원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탈락한 이들은 제외한다. 또한 IAP를 수립하고 고용서비스를 받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프로그램 유예를 신청한 이들 역시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는 IAP를 수립 후 취업, 창업, 중도탈락, 기간만료를 이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고용지원서비스 중 직업훈련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HRD-net의 실업자 훈련 자료를 입수하여 취업성공패키지 DB와 결합하였다. HRD-net의 훈련 자료에는 참여한 훈련의 직종, 각 훈련의 참여 기간, 훈련의 수료 여부, 자격증 취득 여부, 훈련기관명 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훈련 특성 변수를 다각도로 구성하였다.

훈련 변수를 구성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 직종에 따라 취업 성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훈련 직종을 특정해야 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대표직종 훈련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대표훈련직종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받은 훈련으로 정의하였다.

직업훈련은 크게 실업자훈련과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으로 구분된다. 실업자훈련은 공급자 주도의 훈련이고 내일배움카드제는 수요자 주도의 훈련인데 2011년을 기점으로 실업자훈련이 점차 사라지고 내일배움카드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두 훈련이 공존한 시기도 있었으므로 실업자훈련 여부 변수를 추가하여 훈련제도 차이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 직종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훈련 직종을 취업 성과에 연결시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4] 취업성공패키

지 참여자의 훈련참여는 실업자훈련과 계좌제훈련으로 구분된다. 실업자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유의 18개로 구분된 훈련직종분류가 사용된다. 이에 비해 계좌제훈련은 고용직업분류(이하 KECO)를 이용하여 기입되었다. 실업자훈련과 계좌제훈련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연계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HRD-net에서 제공되는 통합매칭표를 사용하였다. 통합매칭표를 이용하더라도 완벽한 연결은 어려운데 그 이유는 KECO가 좀 더 세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직종과 연계될 경우에는 편의를 위해 훈련직종에 대응되는 KECO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KECO로 매칭하였다.

훈련 직종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중에서 어떤 수준으로 정의할 것인지도 결정되어야 한다. HRD-net의 자료를 이용할 때 세분류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종 간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중분류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코드번호 131인 주방장 및 조리사의 경우 세분류로 표현할 경우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바텐더,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세분류를 기준으로 직종을 구분하면 한식과 일식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게 되지만 소분류를 기준으로 하면 한식과 일식 모두 하나의 직종으로 보아서 다른 훈련과 구분하여 대표직종을 선정하게 된다. 소분류보다는 중분류가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대표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기관의 특성 구분이나 훈련의 수료 여부 그리고 훈련의 기간 정보를 측정하였다.

고용보험 DB 자료의 경우 피보험자 원부와 상실, 취득 정보를 결합하여 참여자의 일자리 이력 자료(work history data)를 구성하여 이를 취업성공패키지 DB와 결합하였다. 이력 자료로부터 우선 패키지 사업 참여 전 고용보험 가입 여부, 직전 고용보험사업장 이직 이후 패키지 사업 참여까지의 기간, 실업급여 수령 여부 등의 변수를 만들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후 고용보험이력을 추적하여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로의 취업 여부와 첫 고용보험 일자리에

4) 유경준 외(2008)의 경우에는 훈련직종 중에서 생산직과 서비스직을 구분하고 이것을 고용보험 상의 산업직종과 연결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매칭시켰다. 이러한 방법은 사무직종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제조업의 사무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매칭되지 않았다고 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들이 분석한 시기에는 주로 훈련이 생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직 훈련에서 제조업 생산직으로 간 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계좌제 훈련이며 계좌제 훈련에서 생산직 훈련의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 첫 고용보험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을 계산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사업체통합정보 DB와 연결하여 취업한 사업체의 규모와 업종 그리고 입직 시 직종을 파악하였다.

입직 시 직종은 훈련의 근속 및 경력기간 효과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고용보험 DB상에 기록된 직종 역시 KECO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직종을 연결시켰다. 그런데 고용보험 DB상에는 KECO의 구분류와 신분류가 있는데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구분류에서 신분류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었다. 구분류와 신분류의 매칭이 필요한바, 좀 더 세분된 신분류를 구분류에 대응시켜 구분류 중심으로 통일시켰다. 훈련 직종의 KECO도 구분류로 일원화했다.

훈련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심각한 난점은 취업성공패키지 DB의 훈련 자료와 HRD-net의 훈련 자료 사이에 불일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 DB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기에 HRD-net에는 훈련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HRD-net에는 참여 기간 중에 훈련받은 기록이 있으나 취업성공패키지 DB에는 입력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DB를 관리하는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들의 훈련 기록이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실제 행정적으로 훈련비 지급에 연동하여 기록이 관리되는 HRD-net 자료가 신뢰할 만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HRD-net에 훈련 기록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취업성공패키지 DB에도 훈련기록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DB에 있는데 HRD-net에는 없는 경우가 수적으로 더 많다. 잠정적으로 HRD-net에 없는 경우에 패키지 DB에 훈련기록이 있는 것은 실제 훈련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훈련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직종이나 자격증 취득 등 훈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역시 HRD-net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HRD-net의 정보를 주로 사용하며 취업성공패키지 DB상의 훈련 여부 DB를 추가로 투입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5)]

5) 전병유 외(2012)의 제4장을 제외하고 다른 연구들은 취업성공패키지 내의 훈련정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들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차이를 갖는다.

2.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볼 문제는 첫째, 취업성공패키지 내의 어떤 고용서비스가 취업 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둘째, 어떤 훈련에 어떻게 참여하는가가 취업 성과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이 무엇인가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취업 성과를 정의해야 하는데, 취업 성과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취업 그 자체이다. 두 번째는 취업에 걸린 기간이다. 세 번째는 취업한 이후 얼마나 고용이 지속되는 지이다.

첫 번째의 취업 그 자체 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측정된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이 기록한 취업이다. 여기에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취업도 포함된다. 그래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일반취업만을 측정하는 것도 고려한다. 일반취업 중에서도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를 제외한 일자리에 한해서 참여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취업만을 성과로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를 취업 성과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이 기록한 취업과 고용보험사업장의 취업,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취업에 걸린 기간도 여러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하나는 시작 시점부터 취업에 걸린 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할 수도 있으며 둘째는 본격적인 집중알선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에 걸린 기간을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할 수 있다. 셋째는 참여 시점부터 취업에 걸린 기간에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처럼 일정 기간 프로그램에 잠겨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종속변수로 두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능력 증진의 단계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만약 능력 증진의 단계에도 구직활동이 병행되고 있다면 시작 시점 이후부터의 기간을 종속변수로 해서 분석해야 한다.

세 번째 취업 이후 고용의 지속성은 첫 고용보험 일자리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첫 고용보험 일자리 이후 이직하여 일한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성과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취업 이후 1년 동안의 여러 고용보험 일자리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취업 확률에 대한 회귀분석은 로짓모형을 사용한다. 해당 사건이 벌어질 확

률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아래의 모형에서 Z_1은 개인적 특성에 대한 변수이며 Z_2는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변수이다.

$$Prob(Y=1)= \frac{\exp(Z_1\beta_1 + Z_2\beta_2)}{1+\exp(Z_1\beta_1 + Z_2\beta_2)}$$

취업 여부의 이항변수 분석은 6개월 이내의 취업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분석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고 2개월 만에 취업하는 것과 5개월 만에 취업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취업에 걸리는 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해저드분석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직기간에 대한 회귀분석은 생존기간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비례해저드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였다. 콕스의 비례해저드모형은 다음과 같은 해저드함수를 이용하여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lambda(t_i)= e^{-\beta' x_i}\lambda_0(t_i)$$
$$E[\ln t_i]= -\ln\lambda(t_i)= \beta x_i + \ln\lambda_0(t_i)$$

λ_0는 기저해저드함수인데 콕스 비례해저드모형에서는 편우도함수(partial likelihood function)를 이용하여 λ_0를 추정할 필요 없이 회귀계수 β를 추정한다. 이때 완결된 생존기간 자료와 중도절단된 자료 둘 다를 이용하여 추정한다.[6] 해저드모형에서는 각 변수의 해저드 비율이 계산되는데 그것은 해당 변수의 값이 x인 경우에 대비해서 x+1인 경우의 비율을 의미하여 해당 변수값이 1이 더 클 경우 나타나는 확률의 상대적 비율을 말해준다. 해저드는 생존기간과 반비례관계에 있으므로 해저드 비율은 생존기간의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해저드분석에서는 고용서비스의 여러 변수들이 시간변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집중알선서비스를 받기 전에 본인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여 미리 재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재취업을 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 만약 알선서비스가 제공될 때 알선서비스 여부를 시간불변변수로 더미를 추가하여 추정하게 되면 구직기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관측시점은 2012년 7월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2012년 7월까지 구직활동을 했으나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의 구직기간은 우측 절단된다.

간이 짧은 능력 높은 이들 때문에 알선서비스 제공 더미는 음의 부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집중알선서비스를 받는 이들을 평면적으로 집중알선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집중알선서비스를 받은 시점까지 취업하지 못한 이들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7] 이런 점에서 집중알선서비스의 제공 시점 변수를 고려한 집중알선변수를 구성해야 하며 이러한 독립변수를 시간변동변수(time-varying covariate)라고 부른다.[8] 아래의 식에서 x_{2t}는 시간변동변수이며 x_1은 시간불변변수이다.

$$E[\ln t_i] = \beta_1 x_1 + \beta_2 x_{2t} + \alpha_t$$

시간변동변수를 고려한 추정을 함에 있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고용서비스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집단상담은 보통 1주일 정도 걸리므로 해당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를 시작 시점이나 종료 시점으로 특정하는 것이 큰 문제를 낳지 않는다. 하지만 직업훈련의 경우 짧게는 4주 내외가 걸리고 길 때는 8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일경험 프로그램 역시 최대 5개월을 참여한다. 이럴 경우 시간변동변수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참여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취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예 구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훈련 참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지 여부인데 이에 따라 구직기간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훈련 참여를 기다리는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훈련이 종료된 시점부터 취업까지의 기간을 구직기간으로 보는 것이다.[9] 다른 하나는 훈련 참여를

---

7) 이병희 · 김혜원(2009)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효과를 이러한 방법론으로 검토하고 있다.

8) Allison(1995), pp.138~154 참조.

9) 훈련에 참여할 경우 여러 개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훈련은 수료를 할 수 있고 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수료하지 않은 훈련 중에서는 훈련을 그만 둔 날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훈련의 종료 시점을 어느 것으로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측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훈련을 받았는데 모든 훈련의 종료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샘플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받은 훈련 중 하나라도 종료 일자가 확인된다면 가장 나중의 종료 일자를 훈련이 종료된 일자로 정한다. 디딤돌 일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변수를 정의하며 일경험 프로

기다리는 동안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다고 보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시점부터 취업에 이르는 기간에서 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제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정의를 사용하되 후자의 정의에 의한 결과는 부표로 제시하였다.[10)]

분석 모델 구성에 있어서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서비스, 특히 직업훈련 참여자가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량은 편의를 가질 수 있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험적 방법에 의해 확률적으로 훈련에 참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별하거나 도구변수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와 같은 실험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김혜원(2012)에서 전기 지역 훈련비중 변수를 이용하여 이를 시도한 결과에서는 내생성을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특성 변수를 포함시켜 훈련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의 차이를 통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따랐다.

취업한 사람들에 한정하여 추정하는 근속기간 모형의 경우 추정하는 해저드 함수는 t기간까지 근속한 사람이 t시점 직후에 순간적으로 실직할 조건부확률이다. 따라서 특정 변수의 계수값이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실직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로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남녀의 단순취업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고용보험 취업에서는 남성이 유의하게 높은 취업 성과를 보이며 남녀의 노동시장 결속도(labor market attachment) 차이가 존재하고 세부 고용서비스의 참여 패턴 및 선택 직업훈련 직종에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램의 경우 수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을 한다. 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모두에 참여했을 경우 종료 일자 중에서 후순위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다.

10) 이 방법은 이병희(2000)에서 사용되었다.

Ⅳ. 분석 결과

1. 단순통계량 중심의 분석

<표 1>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주요 성과변수의 평균값이 남녀별로 제시되어 있다. 구직기간 자료의 경우 취업시점이나 훈련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부 자료의 경우 부분적으로 표본수가 줄어들었다. 근속기간 변수의 경우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자에 한정했으므로 표본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표 1〉 주요 성과 변수

변수명	여성			남성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단순취업	22,224	0.64	0.48	9,696	0.65	0.48
고용보험 취업	22,224	0.56	0.50	9,696	0.62	0.48
6개월 내 고용보험 취업	22,224	2.34	3.52	9,696	2.09	3.29
단순취업까지의 구직기간	20,652	119.55	98.54	9,108	126.48	96.93
고용보험 취업까지의 구직기간	20,651	322.50	285.58	9,108	332.42	309.30
근속기간	12,414	7.69	6.82	6,055	7.55	7.15
1년간 경력기간	12,414	157.12	163.84	9,696	167.28	160.19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표 2>는 인적 특성 변수의 평균을 요약한 것이다. 평균 연령은 여성이 38.74세, 남성은 41.19세이며 교육연수는 고졸 이하자가 여성 74%, 남성 69%임을 알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남녀 각각 16%, 18%이며 장애인도 존재한다. 능력과 의지에 따른 유형구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능저의고 유형으로 남녀 각각 59%, 51%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 세 개의 변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 노동시장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었는지

〈표 2〉 인적 특성 변수

변수명	여성		남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38.74	10.26	41.19	12.25
고졸 이하	0.18	0.39	0.20	0.40
전문대졸	0.56	0.50	0.49	0.50
대졸	0.14	0.35	0.12	0.32
가구주 여부	0.56	0.50	0.78	0.41
기초수급자	0.16	0.37	0.18	0.38
장애인	0.03	0.18	0.09	0.28
능고의고	0.24	0.43	0.29	0.45
능고의저	0.06	0.23	0.07	0.26
능저의고	0.59	0.49	0.51	0.50
실업급여 수급	0.12	0.32	0.13	0.34
고용보험사업장 취업경험	0.68	0.47	0.77	0.42
고용보험사업장 이후 실직기간	1.88	3.25	1.84	3.01

자료: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및 고용보험 DB 연결자료.

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68~77%가 고용보험사업장 취업 경험이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이들도 12~13% 정도 있다.

<표 3>에서는 고용서비스 특성을 요약하고 있다. 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의 비중은 여성 61%, 남성 45%이며 3단계 집중취업알선을 받은 경험을 가진 이들은 여성 49%, 남성 53%이다. 2단계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직업훈련으로서 여성은 전체 표본의 51%가 직업훈련에 참여했고 남성은 그보다 크게 낮은 33%가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집단상담으로 여성과 남성 각각 40%와 37%이다. 2단계 프로그램 내의 서비스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데 집단상담과 직업훈련을 모두 받은 이들이 여성과 남성 각각 23%와 15%를 차지하여 절반에 육박하는 직업훈련 참여자들이 집단상담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 중에서 3단계 집중알선 서비스를 받은 이들은 직업훈련 참여자의 절반에 육박하며 집단상담 수혜자의 경우 절반을 훌쩍 뛰어 넘는다.

〈표 3〉 고용서비스 특성

변수명	여성		남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개 이상 훈련수료	0.44	0.50	0.26	0.44
대표직종훈련수료	0.40	0.49	0.23	0.42
5~8주	0.08	0.28	0.08	0.27
9~12주	0.11	0.31	0.08	0.27
13~20주	0.17	0.38	0.10	0.30
21~32주	0.08	0.28	0.04	0.19
33주 이상	0.02	0.15	0.00	0.05
이질직종훈련더미	0.12	0.32	0.07	0.26
실업자훈련더미	0.02	0.13	0.02	0.13
직업전문학교더미	0.18	0.39	0.12	0.33
여성인력개발센터더미	0.02	0.15	0.01	0.07
자격증취득더미	0.01	0.11	0.01	0.08
2단계 집단상담	0.40	0.49	0.37	0.48
2단계 훈련	0.51	0.50	0.33	0.47
2단계 일경험	0.02	0.14	0.01	0.09
2단계 단기취업특강	0.06	0.24	0.06	0.24
2단계 기타서비스	0.00	0.04	0.00	0.05
훈련*집단상담	0.23	0.42	0.15	0.36
일경험*집단상담	0.01	0.10	0.00	0.06
단기취업특강*집단상담	0.03	0.17	0.03	0.16
기타서비스*집단상담	0.00	0.04	0.00	0.04
2단계참여더미	0.61	0.49	0.45	0.50
3단계알선더미	0.49	0.50	0.53	0.50
집단상담*알선	0.28	0.45	0.27	0.44
훈련*알선	0.23	0.42	0.16	0.36
일경험*알선	0.01	0.11	0.00	0.07
단기취업특강*알선	0.03	0.18	0.04	0.19
기타서비스*알선	0.00	0.04	0.00	0.05
상담원보유참여자수	1.25	1.05	1.26	1.07
상담원보유참여자수제곱	2.66	4.90	2.72	5.01
상담원수	2.28	1.70	2.24	1.85
민간위탁더미	0.37	0.48	0.36	0.48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참여자를 사례관리한 직업상담원이 평균적으로 관리하는 참여자 수는 연간 125명이며 남녀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참여자가 경험하는 사례관리자의 수는

2.2명 정도로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은 이들의 비중은 36% 내외이다.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는 이들의 비중은 여성이 40%대, 남성은 25% 내외로 훈련 참여자 중 80%가 수료를 하고 있다. 훈련기간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며 상대적으로 남성의 훈련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다. 상이직종의 훈련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20% 초반대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계좌제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비율은 35% 정도이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는 훈련 참여자 중 2~3%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의 취업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직업훈련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남성의 구직기간을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단순취업의 경우 남성 중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71%가 취업했지만 참여자는 55%만이 취업했다. 만약 직업훈련 참여자가 취업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라면 단순히 평균 취업률만을 비교하여 직업훈련의 효과가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의 결합이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려면 단순 평균 비교가 아닌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표 4〉 직업훈련 참여 여부별 취업 성과 비교

변수명	비참여			참여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단순취업	6,470	0.71	0.46	3,226	0.55	0.50
고용보험 취업	6,470	0.68	0.47	3,226	0.51	0.50
6개월 내 고용보험 취업	6,470	1.92	3.08	3,226	2.42	3.65
단순취업까지의 구직기간	6,407	135.09	101.86	2,701	106.03	80.48
고용보험 취업까지의 구직기간	6,407	339.33	327.55	2,701	316.03	260.30
근속기간	4,404	8.04	7.52	1,651	6.24	5.85
1년간 경력기간	6,470	182.38	157.74	3,226	136.99	160.81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평균 구직기간의 비교 역시 회귀분석이 필요한데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훈련 종료 후 고용보험사업장으로 취업하는데 걸린 구직기간은 미참여자가 339일인 데 비해 훈련 미참여자는 316일로 미참여자의 구직기간이 더 길다. 그런데 구직기간의 측정은 실제 취업하여 구직기간이 완결된 표본과 관측시점까지 취업하지 못해 구직기간이 완결되지 않은 절단된 표본으로 나뉘어진다. <표 5>는 우측절단 여부를 고려하여 만든 표이다. 관측시점인 2012년 7월 20일 전까지 이미 취업한 이들의 구직기간은 우측 절단 여부의 비절단 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직업훈련 참여자는 평균 154일 만에 고용보험사업장에 취업하지만 미참여자는 패키지 참여 이후 평균 179일이 걸린다. 즉 직업훈련 참여자의 구직기간이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7월 20일까지 아직 취업하지 않은 이들의 구직기간을 비교해보면 역시 직업훈련 참여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미참여자에 비해 더 짧다.

이러한 결과는 일견 직업훈련이 취업을 촉진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측절단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직업훈련 참여자들은 49%에 이르지만 미참여자들은 31%에 머무른다. 직업훈련 참여자들 중에서 관측시점까지 취업하지 않은 이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해저드모형은 이러한 절단자 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취업 확률을 비교하는 것인데 직업훈련 변수 하나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해저드함수를 추정하면 직업훈련 더미의 계수값은 유의한 음수값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다양한 인적특성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어떤 고용서비스를 참여하고 어떻게 제공받느냐에 따라서 취업 성과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남성 참여자의 직업훈련 참여별 평균 구직기간 비교

우측 절단 여부	직업훈련 참여 여부	관측치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절단자 비율(%)
비절단	미참여	4,368	179.14	188.16	2.00	1,162.00	-
	참여	1,375	154.20	164.00	0.00	9,75.00	-
절단	미참여	2,039	682.50	297.57	166.00	1,296.00	31.82
	참여	1,326	483.84	234.13	67.00	1,144.00	49.09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2. 취업 확률 분석

본 절에서는 취업 여부의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취업 확률 모형을 추정한다. 우선 여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11] 단순취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단계 참여의 효과는 2단계 참여 더미와 함께 세부 서비스 참여 더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집단상담과 훈련 참여는 취업에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경험과 단기취업특강 등의 서비스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3단계 알선서비스의 효과는 3단계 알선더미의 계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알선과 2단계 세부서비스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세부서비스와 알선을 결합했을 때의 취업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집단상담 참여자에게 알선을 제공할 경우 취업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 참여의 세부 특성별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훈련직종을 수료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아지며 8주를 초과하는 훈련은 8주 이내의 훈련에 비해 취업 효과를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32주를 넘는 장기훈련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상이한 직종의 훈련을 하는 것은 단기 취업 효과에는 부정적이다. 그 외 실업자훈련 여부나 훈련기관의 차이는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취업성공패키지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담원 수는 취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사례관리자가 바뀔 경우에는 취업 성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센터에 비해 민간위탁기관은 여성의 단순취업률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보험사업장 취업 기준으로 여성의 취업성과를 살펴보면 인적 특성이 미치는 효과는 단순취업과 유사하지만 고용서비스 효과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2단계 참여 더미의 계수가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져서 2단계 서비스 중 단기취업특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비스 참여는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단계 알선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단순 취업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훈련의 세부 특성 측면에서는 이질직종훈련이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에 긍정

11) 연도 더미, 인적속성, 지역 더미, 훈련직종 더미를 포함시켰으나 <표 6>에는 제외되어 있으며 훈련직종 더미의 계수는 별도로 <표 7>에 제시한다. 인적속성 변수의 계수값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이병희 외(2010), 김혜원(2012)를 참조하라.

〈표 6〉 여성의 취업확률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단순취업			고용보험 사업장		
	추정치	Wald	승수비	추정치	Wald.	승수비
상수	-0.496 **	5.670		0.487 **	3.997	
1개 이상 훈련수료	0.542 ***	33.461	1.431	0.227 **	4.024	1.005
대표직종훈련수료	0.260 ***	12.730	1.124	0.202 **	5.078	1.027
5~8주	-0.060	0.396	0.780	-0.013	0.016	0.804
9~12주	-0.258 ***	7.267	0.640	-0.025	0.056	0.793
13~20주	-0.357 ***	14.240	0.582	-0.041	0.156	0.782
21~32주	-0.336 ***	10.458	0.583	-0.066	0.313	0.742
33주 이상	-0.053	0.105	0.688	0.594 ***	8.684	1.220
이질직종훈련더미	-0.102 **	3.949	0.817	0.145 **	5.606	1.025
실업자훈련더미	0.003	0.001	0.753	-0.093	0.305	0.656
직업전문학교더미	0.015	0.109	0.931	0.116 **	4.953	1.014
여성인력개발센터더미	-0.041	0.165	0.790	-0.048	0.156	0.751
자격증취득더미	0.180	1.186	0.866	0.340 *	3.370	0.977
2단계 집단상담	-0.422 ***	29.346	0.563	-0.031	0.094	0.797
2단계 훈련	-1.034 ***	68.006	0.278	-0.502 ***	11.785	0.455
2단계 일경험	-0.199	1.191	0.573	0.197	1.049	0.835
2단계 단기취업특강	-0.160	2.249	0.692	0.207 *	3.361	0.986
2단계 기타서비스	-0.081	0.011	0.197	-1.704	1.970	0.017
훈련*집단상담	0.624 ***	74.887	1.620	-0.085	0.850	0.766
일경험*집단상담	0.315	2.197	0.904	0.099	0.154	0.675
단기취업특강*집단상담	-0.020	0.021	0.753	-0.082	0.301	0.688
기타서비스*집단상담	-0.469	0.309	0.119	0.010	0.000	0.121
2단계참여더미	0.209 ***	7.831	1.065	-0.168 *	3.366	0.707
3단계알선더미	0.115 **	4.556	1.009	0.277 ***	27.245	1.188
집단상담*알선	0.138 **	4.290	1.007	0.351 ***	19.205	1.214
훈련*알선	0.083	1.583	0.955	0.036	0.237	0.898
일경험*알선	-0.078	0.137	0.611	-0.031	0.017	0.611
단기취업특강*알선	0.216	2.702	0.959	-0.048	0.121	0.726
기타서비스*알선	1.087	2.218	0.709	1.128	0.818	0.268
상담원보유참여자수	-0.053	1.175	0.863	0.047	0.858	0.949
상담원보유참여자수제곱	0.021 **	4.153	1.001	-0.006	0.324	0.974
참여자 경험 상담원수	-0.068 ***	53.657	0.917	-0.025 **	5.444	0.955
민간위탁더미	0.188 ***	13.507	1.092	0.020	0.123	0.912

주: * : p<0.1, ** : p<0.05, *** : p<0.01.

자료: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적으로 작용하여 단순취업의 결과와 정반대 방향의 효과를 낳는다. 또한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을 경우 유의하게 고용보험사업장 취업 가능성이 높

아지며 자격증의 취업 효과도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에서 유의하게 나타난다. 취업성공패키지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순취업과 마찬가지로 사례관리자가 계속 유지되는 것에 비해 바뀔 경우에는 고용보험사업장 취업 성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기관에 배정된 이들의 성과는 단순취업과 달리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의 경우 고용센터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

훈련직종별 취업성과를 비교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훈련은 주방장 및 조리사 직종인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

〈표 7〉 여성의 상위 20대 훈련직종의 취업 영향

변수명	단순취업			고용보험 사업장		
	추정치	Wald	승수비	추정치	Wad	승수비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0.192 ***	8.772	0.727	-0.902 ***	123.166	0.346
비서 및 사무보조원	0.030	0.225	0.910	0.136 *	3.445	0.992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380 ***	19.374	1.234	0.593 ***	39.945	1.505
디자이너	0.128	1.955	0.950	-0.039	0.149	0.787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0.105	0.542	0.681	0.290	2.680	0.944
제과, 제빵원 및 떡 제조원	-0.243 **	5.084	0.635	-0.500 ***	14.887	0.471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0.349 ***	7.946	0.554	-0.693 ***	23.183	0.377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165	1.427	0.646	-0.201	1.416	0.587
의복제조원 및 수선원	-0.144	0.946	0.648	-0.735 ***	13.730	0.325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기능종사자	-0.273	2.227	0.531	-0.791 ***	9.519	0.274
안내, 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164	0.428	0.721	0.031	0.015	0.626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종사자	-0.612 ***	7.455	0.350	-0.879 ***	10.266	0.243
경영지원 및 행정관련 사무원	0.309	1.557	0.838	0.421	2.642	0.917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0.381	0.971	0.686	0.081	0.046	0.517
건설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0.382	0.897	0.664	-0.073	0.024	0.370
웹 전문가	-0.130	0.220	0.509	-0.494	2.414	0.327
무역 및 운송관련 사무원	0.936	2.005	0.698	1.637 **	4.446	1.122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0.320	0.448	0.285	0.294	0.276	0.448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0.223	0.172	0.279	0.401	0.307	0.362
기타직종	-0.251	2.095	0.554	-0.361 *	3.256	0.470

주 : * : p<0.1, ** : p<0.05, *** : p<0.01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분의 직종들이 주방장 및 조리사 직종에 비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직종별 취업성과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낮은 취업성과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직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 직종훈련이 단순취업 성과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에 비해 재단재봉 훈련, 식당서비스 종사직훈련에서는 낮은 취업성과를 보였다. 고용보험사업장 취업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 외에도 무역 및 운송, 경영지원, 비서 및 사무보조원 훈련이 높은 성과를 보였다. 낮은 성과를 보인 훈련직종도 단순취업과 유사하며 다만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의복제조 및 수선업이 크게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남성의 취업확률을 추정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단순취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단계 서비스 중에서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훈련 서비스에 집단상담, 집중알선 등의 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훈련의 부정적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훈련의 세부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단순취업에 있어서 훈련의 수료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기간은 길면 길수록 취업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좌제훈련에 비해 실업자훈련이 취업효과가 떨어지며 직업전문학교가 다른 교육훈련기관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은 취업성과를 확실히 제고시킨다. 취업성공패키지 관리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담원 수는 취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사례관리자가 바뀔 경우에는 취업 성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간위탁기관과 고용센터의 단순취업률 성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훈련 참여의 부정적 효과는 단순취업과 비슷하게 유지된다. 그런데 훈련 세부직종별 효과를 보여주는 <표 9>와 함께 살펴보면 약간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 단순취업에 비해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의 경우 훈련직종의 차이가 뚜렷히 나타나며 기준변수인 조리사 직종에 비해 많은 직종들이 더 나은 취업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훈련은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 남성의 취업확률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단순취업			고용보험 사업장		
	추정치	Wald	승수비	추정치	Wald.	승수비
상수	0.527 *	2.885		1.486 ***	18.554	
1개 이상 훈련수료	0.406 **	5.942	1.083	0.170	0.744	0.805
대표직종훈련수료	0.227	2.546	0.950	0.179	1.109	0.857
5~8주	-0.304 **	4.089	0.550	-0.269	2.631	0.552
9~12주	-0.440 ***	8.040	0.476	-0.399 **	5.401	0.479
13~20주	-0.436 ***	8.163	0.480	-0.331 *	3.818	0.516
21~32주	-0.448 **	5.898	0.445	-0.274	1.696	0.503
33주 이상	-1.120 **	6.224	0.135	-1.124 *	3.420	0.099
이질직종훈련더미	-0.074	0.561	0.766	0.250 **	4.601	1.022
실업자훈련더미	-0.381 *	2.910	0.441	0.155	0.400	0.723
직업전문학교더미	0.154 *	3.303	0.988	0.089	0.833	0.903
여성인력개발센터더미	0.514	2.295	0.860	0.240	0.369	0.586
자격증취득더미	0.980 ***	7.585	1.327	0.534	2.323	0.858
2단계 집단상담	-0.190	2.476	0.652	-0.031	0.043	0.727
2단계 훈련	-1.092 ***	28.831	0.225	-0.919 ***	15.784	0.254
2단계 일경험	-0.506	1.188	0.243	0.267	0.293	0.497
2단계 단기취업특강	-0.342 *	3.510	0.497	-0.039	0.043	0.664
2단계 기타서비스	1.793	1.504	0.342	-0.620	0.236	0.044
훈련*집단상담	0.405 ***	12.190	1.194	0.046	0.103	0.792
일경험*집단상담	0.384	0.555	0.535	-0.550	0.850	0.179
단기취업특강*집단상담	-0.198	0.834	0.536	0.126	0.306	0.725
기타서비스*집단상담	-1.395	1.014	0.016	0.405	0.091	0.109
2단계참여더미	0.187 *	2.857	0.971	0.003	0.001	0.779
3단계알선더미	0.100	1.943	0.960	0.222 ***	10.316	1.090
집단상담*알선	0.058	0.293	0.859	0.167	1.890	0.931
훈련*알선	0.374 ***	12.051	1.177	0.243 **	4.252	1.012
일경험*알선	-0.030	0.003	0.345	-0.222	0.134	0.243
단기취업특강*알선	0.458 **	4.724	1.046	0.024	0.013	0.677
기타서비스*알선	-1.222	0.604	0.013	-0.487	0.095	0.028
상담원보유참여자수	-0.097	1.660	0.784	-0.131 *	3.036	0.757
상담원보유참여자수제곱	0.023	2.245	0.993	0.019	1.654	0.990
참여자 경험 상담원수	-0.067 ***	26.495	0.911	-0.039 ***	7.062	0.934
민간위탁더미	-0.055	0.475	0.809	-0.204 **	5.664	0.689

주 : * : p<0.1, ** : p<0.05, *** : p<0.01.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표 9〉 남성의 상위 20대 훈련직종의 취업 영향

변수명	단순취업			고용보험사업장		
	추정치	Wald	승수비	추정치	Wald	승수비
웹 및 제품 디자이너	-0.003	0.001	0.756	0.362 **	4.820	1.040
비서 및 사무보조원	-0.046	0.107	0.725	0.172	1.038	0.853
제과, 제빵원 및 떡 제조원	0.239	1.401	0.855	0.190	0.621	0.75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12	0.874	0.792	0.601 **	5.705	1.114
용접원	0.217	1.096	0.828	0.524 **	5.086	1.071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0.164	0.609	0.780	0.707 ***	8.469	1.259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0.405 *	2.973	0.946	1.201 ***	20.584	1.978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0.020	0.006	0.621	-0.695 *	3.815	0.248
자동차 정비원	0.338	1.507	0.817	0.482	2.478	0.888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0.472 *	3.219	0.957	0.001	0.000	0.575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282	1.314	0.819	0.589 **	4.672	1.056
내선외선전공	0.093	0.108	0.629	0.846 **	6.582	1.22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62 **	5.973	0.253	0.151	0.179	0.578
건설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0.020	0.005	0.601	-0.308	0.763	0.368
웹 전문가	0.424	1.664	0.802	0.640 *	3.002	0.919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0.498	1.531	0.748	0.542	1.439	0.709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0.663 **	3.895	1.005	0.759 **	4.956	1.095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0.427	1.254	0.726	1.388 ***	10.700	1.744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471 ***	7.672	1.537	1.639 ***	9.984	1.863
기타	0.357 **	5.134	1.049	0.357 *	3.831	0.999

주 : * : p<0.1, ** : p<0.05, *** : p<0.01.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을 기준으로 할 때 훈련 직종별 효과가 뚜렷히 나타나는 반면, 훈련의 세부 특성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수료 효과도 유의하지 않으며 계좌제, 실업제 훈련 여부나 훈련기관 특성도 유의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질적 훈련을 함께 수강하는 것이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동종직종 훈련이 아니더라도 보완적 훈련을 이수하는 것이 취업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관리 특성이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담원 수는 취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사례관리자가 바뀔 경우에는 취업 성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참여

자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의 업무부담이 커질 경우 남성 참여자의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센터와 비교할 때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에서 뒤떨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

3. 구직기간의 해저드분석

취업 여부의 이항변수 분석은 2개월 만에 취업하는 것과 5개월 만에 취업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구직해저드모형을 보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시간불변변수로 추정한 모형과 시간변동변수로 추정한 모형을 구분한다. 모든 변수를 시간불변변수로 둔 여성의 구직해저드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10>에 요약되어 있다. 취업확률 모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3단계 알선서비스의 계수값으로서 알선서비스 참여는 구직해저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알선서비스가 우선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일정 기간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단계 서비스 중에서 훈련의 성과는 관련된 여러 변수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평가할 수 있다. 2단계 참여더미와 2단계 훈련더미의 합은 음의 값을 가져 훈련 참여가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훈련 수료 더미를 고려하면 오히려 다른 서비스에 비해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직업전문학교를 다니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구직해저드가 양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관리 특성이 단순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상담원 수는 취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사례관리자가 바뀔 경우에는 취업 성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참여자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의 업무부담이 커질 경우 남성 참여자의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배정된 이들에 비해 민간위탁에 배정된 이들이 단순취업의 경우 더 빨리 취업하며 고용보험사업장의 경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여성의 구직해저드 회귀분석 결과(시간불변변수)

변수명	단순취업			고용보험 사업장		
	추정치	카이제곱	해저드비율	추정치	카이제곱	해저드비율
1개 이상 훈련수료	0.035	0.170	1.035	0.002	0.001	1.002
대표직종훈련수료	0.309 ***	35.443	1.362	0.209 ***	13.093	1.233
5~8주	-0.075	1.297	0.927	0.037	0.275	1.038
9~12주	-0.109 *	2.742	0.897	0.003	0.002	1.003
13~20주	-0.053	0.662	0.949	0.029	0.181	1.030
21~32주	0.054	0.568	1.055	0.073	0.896	1.076
33주 이상	0.299 ***	7.848	1.348	0.377 ***	10.557	1.457
이질직종훈련더미	0.001	0.001	1.001	0.057	2.647	1.059
실업자훈련더미	-0.063	0.382	0.939	-0.076	0.545	0.927
직업전문학교더미	0.084 ***	8.484	1.087	0.098 ***	9.532	1.103
여성인력개발센터더미	0.057	0.758	1.058	-0.020	0.083	0.980
자격증취득더미	0.282 ***	7.745	1.326	0.168	2.382	1.183
2단계 집단상담	-0.480 ***	101.843	0.619	-0.250 ***	21.715	0.779
2단계 훈련	-0.370 ***	15.151	0.691	-0.453 ***	21.133	0.635
2단계 일경험	0.372 **	5.724	1.450	0.157	1.021	1.170
2단계 단기취업특강	-0.238 ***	11.513	0.788	-0.079	1.205	0.924
2단계 기타서비스	-0.115	0.064	0.892	-1.548	2.217	0.213
훈련*집단상담	0.632 ***	203.215	1.882	0.314 ***	40.565	1.369
일경험*집단상담	0.004	0.001	1.004	0.368 **	4.374	1.444
단기취업특강*집단상담	0.012	0.021	1.012	-0.024	0.082	0.976
기타서비스*집단상담	-0.651	2.356	0.522	-0.676	1.196	0.509
2단계참여더미	0.184 ***	18.792	1.202	0.096 **	4.108	1.100
3단계알선더미	-0.287 ***	106.295	0.750	0.002	0.004	1.002
집단상담*알선	0.108 ***	6.797	1.114	0.157 ***	11.796	1.170
훈련*알선	0.024	0.369	1.024	0.081 *	3.598	1.084
일경험*알선	-0.135	0.612	0.874	-0.237	1.785	0.789
단기취업특강*알선	0.168 **	4.563	1.183	0.057	0.494	1.059
기타서비스*알선	0.793 *	3.213	2.210	1.794 *	2.946	6.015
상담원보유참여자수	-0.162 ***	33.938	0.850	-0.034	1.397	0.966
상담원보유참여자수제곱	0.056 ***	96.235	1.057	0.015 **	6.401	1.015
상담원수	-0.099 ***	243.445	0.906	-0.039 ***	37.224	0.962
민간위탁더미	0.099 ***	10.615	1.104	-0.026	0.610	0.975

주 : * : p<0.1, ** : p<0.05, *** : p<0.01.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표 11〉 여성의 구직해저드 회귀분석 결과(시간변동변수)

변수명	단순취업			고용보험 사업장		
	추정치	카이 제곱	해저드 비율	추정치	카이 제곱	해저드 비율
1개 이상 훈련수료	0.039	0.213	1.040	0.006	0.005	1.006
대표직종훈련수료	0.251 ***	23.469	1.286	0.189 ***	10.744	1.208
5~8주	-0.075	1.281	0.928	0.035	0.242	1.035
9~12주	-0.115 *	3.023	0.892	0.007	0.009	1.007
13~20주	-0.079	1.471	0.924	0.022	0.103	1.023
21~32주	0.014	0.039	1.014	0.059	0.580	1.060
33주 이상	0.290 ***	7.453	1.337	0.363 ***	9.737	1.437
이질직종훈련더미	-0.012	0.137	0.988	0.046	1.676	1.047
실업자훈련더미	-0.061	0.368	0.941	-0.071	0.487	0.931
직업전문학교더미	0.069 **	5.826	1.072	0.094 ***	8.782	1.099
여성인력개발센터더미	0.077	1.413	1.080	0.021	0.087	1.021
자격증취득더미	0.240 **	5.574	1.271	0.133	1.489	1.142
2단계 집단상담	-0.365 ***	71.431	0.694	-0.130 ***	7.220	0.878
2단계 훈련	0.060	0.402	1.061	-0.085	0.764	0.918
2단계 일경험	0.513 ***	17.178	1.670	0.309 **	5.872	1.362
2단계 단기취업특강	-0.141 **	5.246	0.869	0.032	0.262	1.032
2단계 기타서비스	0.287	0.618	1.332	-0.261	0.241	0.771
훈련*집단상담	0.495 ***	125.263	1.641	0.237 ***	23.289	1.268
일경험*집단상담	0.077	0.206	1.080	0.327 *	3.425	1.387
단기취업특강*집단상담	-0.026	0.105	0.974	-0.108	1.616	0.897
기타서비스*집단상담	-0.397	0.842	0.672	-0.331	0.282	0.718
2단계참여더미	-0.031	0.533	0.970	-0.113 **	5.803	0.893
3단계알선더미	0.550 ***	357.669	1.733	0.512 ***	285.227	1.669
집단상담*알선	0.287 ***	50.738	1.333	0.346 ***	61.307	1.414
훈련*알선	-0.358 ***	73.646	0.699	-0.340 ***	54.471	0.712
일경험*알선	-0.612 ***	9.073	0.543	-0.528 **	6.089	0.590
단기취업특강*알선	0.124	2.582	1.132	-0.022	0.070	0.979
기타서비스*알선	0.408	1.080	1.503	0.114	0.037	1.121
상담원보유참여자수	-0.110 ***	15.589	0.896	-0.008	0.071	0.992
상담원보유참여자수제곱	0.038 ***	45.644	1.039	0.007	1.473	1.007
상담원수	-0.096 ***	229.778	0.909	-0.038 ***	35.278	0.963
민간위탁더미	-0.198 ***	44.825	0.820	-0.154 ***	22.689	0.857

주 : * : p<0.1, ** : p<0.05, *** : p<0.01.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표 11>은 집중알선과 집단상담을 시간변동변수로 포함시켜 추정한 결과이다.[12] 시간변동변수로 포함시킨 알선 서비스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변화하여 시간불변변수로 포함시킨 경우 음의 값을 갖거나 유의하지 않은 경우와 대조된다. 알선서비스를 받기 전 빨리 취업한 집단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알선서비스를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빨리 취업하여 알선서비스의 효과가 뚜렷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시간변동변수의 도입으로 훈련 참여 그 자체는 취업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훈련과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여타 고용서비스의 취업 효과와 동시에 고려해야 훈련의 효과를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훈련 후에 알선서비스를 받은 집단은 알선더미 계수와 훈련*알선의 계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10% 유의도에서 양의 값을 가져서 훈련의 효과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표직종훈련을 수료할 경우 훈련의 긍정적 효과는 배가된다.

시간변동변수를 고려했을 때 크게 변화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민간위탁 더미이다. 시간불변변수 모형에서는 단순취업에서 민간위탁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간변동변수를 고려하면 민간위탁되었을 경우 구직기간을 유의하게 늘리는 효과를 낳는다.

<표 12>는 시간불변변수를 이용한 남성의 구직해저드분석 결과인데 우선 첫 번째 열의 단순취업 기준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여성의 경우와 비슷하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일경험과 민간위탁더미의 계수로서 여성의 경우 일경험이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데 비해 남성의 경우 별다는 효과가 없다. 민간위탁 또한 여성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남성의 경우 유의하지 않다. <표 12>의 두 번째 열은 고용보험사업장 취업 기준의 구직해저드분석 결과인데 단순취업과 비교할 때 고용서비스 변수의 유의도가 대폭 하락함을 알 수 있다. 훈련수료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특성이 단순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고용보험사업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기할 점은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의 경우 훈련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

12) 집중알선에 고려된 상호작용항과 집단상담이 고려된 상호작용항 역시 시간변동변수로 포함시켰다.

〈표 12〉 남성의 구직해저드 회귀분석 결과(시간불변변수)

변수명	단순취업			고용보험사업장		
	추정치	s.e.	해저드 비율	추정치	s.e.	해저드 비율
1개 이상 훈련수료	0.037	0.069	1.038	0.137	0.846	1.147
대표직종훈련수료	0.238 **	5.348	1.269	0.178	2.681	1.195
5~8주	-0.208 **	3.946	0.812	-0.098	0.765	0.907
9~12주	-0.230 **	4.610	0.795	-0.091	0.633	0.913
13~20주	-0.169	2.629	0.844	-0.044	0.160	0.957
21~32주	-0.186	2.158	0.830	0.009	0.005	1.009
33주 이상	-0.169	0.276	0.845	-0.013	0.002	0.988
이질직종훈련더미	-0.006	0.009	0.994	0.094	1.986	1.098
실업자훈련더미	-0.138	0.699	0.871	0.102	0.474	1.108
직업전문학교더미	0.140 **	6.126	1.151	0.115 *	3.776	1.122
여성인력개발센터더미	0.437 **	4.025	1.548	0.052	0.044	1.053
자격증취득더미	0.438 **	4.354	1.550	0.263	1.682	1.301
2단계 집단상담	-0.249 ***	12.563	0.780	-0.149 **	3.920	0.862
2단계 훈련	-0.393 **	6.552	0.675	-1.055 ***	42.457	0.348
2단계 일경험	0.534	1.491	1.706	0.303	0.517	1.354
2단계 단기취업특강	-0.261 **	4.932	0.770	-0.194 *	2.881	0.824
2단계 기타서비스	0.000	0.000	1.000	-0.019	0.000	0.981
훈련*집단상담	0.427 ***	33.991	1.533	0.255 ***	10.851	1.290
일경험*집단상담	0.263	0.284	1.301	-0.514	1.171	0.598
단기취업특강*집단상담	-0.172	1.909	0.842	0.010	0.006	1.010
기타서비스*집단상담	-0.122	0.024	0.885	-0.550	0.278	0.577
2단계참여더미	0.138 **	4.840	1.148	0.163 **	6.036	1.177
3단계알선더미	-0.336 ***	84.518	0.714	-0.052	2.050	0.949
집단상담*알선	0.055	0.749	1.057	0.031	0.223	1.032
훈련*알선	0.164 **	5.865	1.178	0.236 ***	11.376	1.266
일경험*알선	-0.580	1.183	0.560	-0.016	0.001	0.984
단기취업특강*알선	0.359 ***	8.075	1.432	0.180	2.125	1.197
기타서비스*알선	-0.460	0.212	0.631	-0.830	0.421	0.436
상담원보유참여자수	-0.199 ***	23.299	0.819	-0.091 **	4.892	0.913
상담원보유참여자수제곱	0.063 ***	55.909	1.065	0.023 ***	8.108	1.024
상담원수	-0.101 ***	124.588	0.904	-0.044 ***	27.214	0.957
민간위탁더미	-0.007	0.020	0.994	-0.081 *	2.939	0.922

주 : * : p<0.1, ** : p<0.05, *** : p<0.01.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표 13〉 남성의 구직해저드 회귀분석 결과(시간변동변수)

변수명	단순취업			고용보험 사업장		
	추정치	카이 제곱	해저드 비율	추정치	카이 제곱	해저드 비율
1개 이상 훈련수료	0.040	0.079	1.041	0.123	0.674	1.130
대표직종훈련수료	0.210 **	4.163	1.234	0.185 *	2.891	1.203
5~8주	-0.222 **	4.509	0.801	-0.091	0.656	0.913
9~12주	-0.241 **	5.073	0.786	-0.099	0.750	0.906
13~20주	-0.203 *	3.759	0.817	-0.065	0.338	0.937
21~32주	-0.214 *	2.819	0.807	-0.004	0.001	0.996
33주 이상	-0.125	0.152	0.883	-0.006	0.000	0.994
이질직종훈련더미	-0.002	0.001	0.998	0.094	1.987	1.099
실업자훈련더미	-0.166	1.010	0.847	0.090	0.365	1.094
직업전문학교더미	0.135 **	5.727	1.145	0.121 **	4.151	1.128
여성인력개발센터더미	0.344	2.488	1.411	0.039	0.025	1.040
자격증취득더미	0.429 **	4.198	1.536	0.244	1.448	1.276
2단계 집단상담	-0.130 **	4.339	0.878	-0.037	0.312	0.964
2단계 훈련	0.013	0.007	1.013	-0.711 ***	19.655	0.491
2단계 일경험	0.441	1.509	1.554	0.531 *	2.900	1.700
2단계 단기취업특강	-0.028	0.079	0.973	0.003	0.001	1.003
2단계 기타서비스	-0.023	0.002	0.978	-0.874	0.889	0.417
훈련*집단상담	0.327 ***	20.496	1.387	0.222 ***	8.452	1.248
일경험*집단상담	0.088	0.032	1.092	-0.703	2.187	0.495
단기취업특강*집단상담	-0.300 **	5.914	0.741	-0.130	1.091	0.878
기타서비스*집단상담	-0.282	0.205	0.754	-0.676	0.534	0.508
2단계참여더미	-0.058	0.858	0.944	-0.019	0.088	0.981
3단계알선더미	0.323 ***	71.020	1.381	0.304 ***	62.883	1.356
집단상담*알선	0.143 **	5.793	1.154	0.144 **	5.411	1.154
훈련*알선	-0.084	1.438	0.920	-0.060	0.645	0.942
일경험*알선	-0.503	0.883	0.605	0.079	0.022	1.083
단기취업특강*알선	0.208 *	3.412	1.231	0.046	0.169	1.047
기타서비스*알선	-0.378	0.369	0.685	0.693	0.567	2.000
상담원보유참여자수	-0.181 ***	19.110	0.835	-0.080 *	3.782	0.923
상담원보유참여자수제곱	0.054 ***	41.533	1.056	0.020 **	5.845	1.020
상담원수	-0.099 ***	121.530	0.906	-0.045 ***	27.574	0.956
민간위탁더미	-0.278 ***	38.709	0.757	-0.208 ***	19.591	0.813

주 : * : p<0.1, ** : p<0.05, *** : p<0.01.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표 13>은 집중알선과 집단상담을 시간변동변수로 둔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인데 시간변동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변수의 값은 크게 변하였다.

시간변동변수로 포함시킨 알선 서비스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변화하여 시간불변변수로 포함시킨 경우와 부호가 정반대로 변화하였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불변변수로 투입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편의가 교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훈련 참여는 시간변동변수의 도입으로 단순취업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계수값의 크기는 40%가량 줄어들어 부정적 효과는 줄어들었다. 훈련과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여타 고용서비스의 긍정적 취업 효과가 늘어났고 훈련의 특성변수들도 유의한 것들이 많아져 실제 훈련의 효과는 다양한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훈련의 계수 -0.711에 알선 서비스가 제공되면 0.304가 더해지고 대표직종의 훈련수료와 직업전문학교를 다닐 경우 0.302가 더해진다. 여기에 많은 남성 훈련 직종의 계수값이 0.2 이상의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므로 훈련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4. 근속 및 경력기간에 대한 직업훈련의 효과 분석

다음으로 통합적 고용서비스가 취업 후 고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고용의 질은 다양한 변수로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첫 고용보험사업장의 근속기간과 첫 고용보험사업장 취업 이후 1년 동안의 취업기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용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능력을 갖게 되거나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을 경우 근속기간이나 취업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용지원서비스의 효과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지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고용보험사업장 일자리에 한정하였다.

근속기간를 이용하여 실직으로의 탈출률를 보여주는 실직해저드함수를 추정한 것이 <표 14>의 첫 번째 열이다.[13] 직업훈련의 효과는 직업훈련 참여변수와 직업훈련 수료 변수를 결합하여 살펴본다. 여성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은 이들

13) 인적 특성 변수와 함께 지역, 업종, 산업 특성 및 취업한 사업체의 규모를 통제하였으나 본문에서는 고용서비스 특성만을 제시하였다.

의 이직 위험은 다른 서비스를 받은 이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직업훈련 참여자 중에서 훈련을 수료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여준다. 직업훈련 기간이 미치는 영향력은 여성의 경우 32주를 넘어서는 훈련에서 근속기간이 길 뿐 그 이하에서는 근속기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업훈련직종과 취업직종이 동일한 경우의 근속효과도 여성의 경우 유의하지 않다. 계수의 부호만으로 볼 때 직업훈련직종과 취업직종이 동일할 경우 여성의 이직확률은 떨어지긴 하지만 유의확률 10%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

두 번째 열은 1년 동안의 경력기간을 취업일로 측정하여 이를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14] 근속기간은 중요한 성과 변수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근로자의 경우 첫 일자리와의 매칭 품질이 나쁠 경우에 빨리 이직하고 자신에게 맞는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여 긴 근속기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의 근로자는 첫 일자리의 불운 때문에 향상된 취업능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 고용보험 일자리에 취업한 이후 1년 동안의 경력기간 변수를 구성하였다. 365일이 최대치이며 1일이 최소치이다. 1년의 기간에 한정했으므로 경력기간 변수는 우측절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회귀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토빗모델을 사용하였다.[15]

회귀계수의 부호가 양의 값을 가지면 더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직해저드모형의 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경력기간 모델에서도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들은 낮은 성과를 보여준다. 훈련에 참여한 이들이 80일가량 덜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훈련과 함께 집단상담에 참여한 이들은 낮은 성과가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변수들이 경력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이 경우에도 앞선 주와 같이 여러 요인들을 통제한 결과이다. 업종, 산업, 취업한 사업체 규모는 첫 번째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이다.

15) 1년의 기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첫 고용보험 일자리가 2012년 7월 20일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고용보험 정보가 불완전하여 실제로는 피보험자격을 상실했으나 상실 일자가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 역시 제외하였다.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적용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표 14〉 여성의 실직 해저드 및 경력기간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근속기간			경력기간	
	추정치	s.e.	해저드 비율	추정치	t값
상수항				268.579 ***	4.500
같은 직종 훈련 더미	-0.077	1.477	0.926	-2.228	-0.170
1개 이상 훈련수료	-0.259 **	3.951	0.772	42.763	1.520
대표직종훈련수료	-0.109	1.136	0.896	31.159	1.450
5~8주	-0.047	0.153	0.954	-6.647	-0.250
9~12주	0.046	0.142	1.047	-17.545	-0.670
13~20주	0.087	0.517	1.091	-17.338	-0.660
21~32주	0.114	0.710	1.121	-22.447	-0.780
33주 이상	-0.599 **	5.460	0.550	79.643 *	1.700
이질직종훈련더미	0.019	0.082	1.020	-6.086	-0.440
실업자훈련더미	-0.124	0.474	0.884	-5.364	-0.120
직업전문학교더미	0.068	1.305	1.070	-4.040	-0.320
여성인력개발센터더미	-0.093	0.388	0.911	21.582	0.730
자격증취득더미	0.050	0.059	1.051	-8.095	-0.170
2단계 집단상담	0.057	0.269	1.059	-1.404	-0.060
2단계 훈련	0.596 ***	12.786	1.815	-80.880 **	-2.220
2단계 일경험	-0.097	0.203	0.908	27.783	0.590
2단계 단기취업특강	0.186	2.164	1.205	-8.814	-0.290
2단계 기타서비스	2.056 **	4.103	7.811	-188.506	-0.670
훈련*집단상담	-0.161	2.667	0.851	37.696 *	1.840
일경험*집단상담	0.071	0.072	1.074	-14.321	-0.260
단기취업특강*집단상담	-0.286 *	2.910	0.752	28.082	0.740
기타서비스*집단상담	10.843	0.001	51185.100	-65.334	-0.200
2단계참여더미	-0.013	0.017	0.987	-14.151	-0.670
3단계알선더미	0.086	1.951	1.090	-11.033	-0.790
집단상담*알선	0.029	0.103	1.029	-19.449	-1.010
훈련*알선	-0.098	1.378	0.906	26.006	1.420
일경험*알선	-0.052	0.040	0.950	27.460	0.510
단기취업특강*알선	0.010	0.004	1.010	23.759	0.660
기타서비스*알선	-12.926	0.001	0.000	250.787	0.610
상담원보유참여자수	-0.024	0.175	0.976	15.921	1.220
상담원보유참여자수제곱	0.001	0.006	1.001	-2.268	-0.860
상담원수	-0.009	0.558	0.991	2.792	1.090
민간위탁더미	0.045	0.485	1.046	9.235	0.670

주 : * : p<0.1, ** : p<0.05, *** : p<0.01.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표 15〉 남성의 실직 해저드 및 경력기간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근속기간			경력기간	
	추정치	s.e.	해저드 비율	추정치	t값
상수항				290.245	3.260
같은 직종 훈련 더미	-0.531 ***	10.766	0.588	78.114 **	2.390
1개 이상 훈련수료	-0.402	2.439	0.669	39.178	0.750
대표직종훈련수료	0.309	1.793	1.362	-17.474	-0.390
5~8주	0.150	0.509	1.161	-14.248	-0.330
9~12주	0.169	0.600	1.184	-11.457	-0.250
13~20주	0.157	0.529	1.170	1.105	0.020
21~32주	0.064	0.058	1.066	28.311	0.510
33주 이상	1.024 *	3.316	2.784	-9.231	-0.080
이질직종훈련더미	0.079	0.373	1.082	-6.713	-0.250
실업자훈련더미	0.261	0.708	1.298	-78.658	-1.220
직업전문학교더미	0.047	0.166	1.048	-26.103	-1.070
여성인력개발센터더미	-0.363	0.360	0.695	4.109	0.040
자격증취득더미	-0.039	0.010	0.962	3.422	0.040
2단계 집단상담	-0.077	0.209	0.926	17.528	0.500
2단계 훈련	0.175	0.397	1.191	-19.220	-0.320
2단계 일경험	0.478	0.854	1.613	-4.931	-0.040
2단계 단기취업특강	-0.275	0.972	0.760	60.552	0.960
2단계 기타서비스	0.066	0.004	1.068	45.844	0.150
훈련*집단상담	-0.135	0.735	0.873	54.297 *	1.650
일경험*집단상담	0.509	0.635	1.663	-38.507	-0.250
단기취업특강*집단상담	0.382	1.748	1.465	-51.613	-0.780
기타서비스*집단상담	1.067	0.466	2.907	-112.744	-0.260
2단계참여더미	0.286 *	3.699	1.331	-56.150 *	-1.770
3단계알선더미	0.015	0.031	1.015	5.571	0.280
집단상담*알선	-0.253 *	3.172	0.776	47.711	1.540
훈련*알선	-0.057	0.170	0.945	4.167	0.140
일경험*알선	-1.160 *	3.321	0.314	71.513	0.460
단기취업특강*알선	-0.106	0.123	0.899	-21.541	-0.310
기타서비스*알선	0.000	.	.	0.000	.
상담원보유참여자수	-0.009	0.010	0.991	20.809	1.010
상담원보유참여자수제곱	0.007	0.134	1.007	-6.869 *	-1.680
상담원수	-0.016	0.733	0.985	4.012	1.030
민간위탁더미	0.244 **	6.033	1.276	-42.697 **	-1.970

주 : * : p<0.1, ** : p<0.05, *** : p<0.01.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남성에 대한 분석은 <표 15>에 제시되어 있는바, 여성과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 직업훈련직종과 취업직종이 동일한 경우의 효과이다. 같은 직종으로 취업할 경우 유의하게 실직해저드가 감소하며 1년간의 경력일수도 여타 참여자와 비교할 때 78일이나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AP 수립을 통해 면밀하게 자신의 능력증진 목표를 세우고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며 직업훈련직종과 관련된 일자리로 취업한 경우 유의하게 높은 직장 유지 가능성 및 노동시장 지속참여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민간위탁기관에 배정된 참여자들이 고용센터에 배정된 이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을 갖는다. 실직해저드분석에서 민간위탁되지 않은 이들에 비해 위탁된 이들이 27% 더 실직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력기간 분석에서도 42일 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의 경우 훈련에 참여했던 이들이 미참여자에 비해 근속기간과 경력기간이 짧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훈련의 부정적 효과가 근속 및 경력기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V. 결 론

통합적 고용서비스는 개개의 서비스를 별도의 전달체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의 취업능력과 구직의욕을 고려하여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개별 서비스의 성과 연구와 구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의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에게 제공된 고용서비스가 취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결합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경우 결합의 효과는 취업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훈련 참여자의 취업 성과는 상대적으로 훈련 미참여자의 취업 성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것은 훈련 참여자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훈련 참여자 중에서 집중알선을 받은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서는 알선을 받은 근로자가 더 나은 성과를 보였으며, 훈련과 동시에 집단상담에 참여한 근로자와 그렇

지 않은 근로자 중에서 전자가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직업훈련의 경우 일관되게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지만 직업훈련의 세부 특성과 훈련 직종을 고려할 경우 훈련 참여의 관리를 통해 취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훈련의 수료 여부는 여성의 단순취업 및 고용보험사업장 취업 확률 및 구직해저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단순취업의 취업 확률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보험사업장 취업확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변동변수를 고려한 구직해저드분석에서 훈련수료는 유의하게 구직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적인 직업훈련기관의 등록은 취업 확률과 구직해저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시간변동변수를 감안할 경우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에 있어서 전문훈련기관 등록은 유의미하지만 자격증의 영향력은 사라진다. 또한 취업의 질에 미치는 변수를 검토한 결과 훈련을 받은 직종과 취업한 직종이 동일할 경우 남성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이 유의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서비스 관리 측면의 효과도 살펴보았다. 우선 민간위탁기관이 고용센터에 비해 취업 성과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여성의 단순취업에서 민간위탁기관의 성과가 고용센터보다 나은 것을 제외하면 여성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과 고용센터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 일관되게 민간위탁기관이 낮은 고용보험사업장 취업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보험사업장으로의 취업 확률에서도 그러하며 구직해저드분석에서도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실직 해저드 분석과 경력기간 분석에 있어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 받은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근속기간과 경력기간을 시현하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과도하게 취업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되는 결과이므로 면밀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상담원이 담당하는 참여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상담원이 자주 교체될 경우 취업 성과가 나빠진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얻을 수 있었으므로 적정한 인력이 유지될 수 있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양한 서비스 참여자를 비교함에 있어서 가용한 모든 인적 속성 변수를 포함시켜 이질성을 통제하고자 하였지만 서비스 참여의 내생성 문제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변동변수를 고려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었다. 향후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신청하여 떨어진 이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들의 취업성과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들의 그것과 비교하는 준실험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들이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면 이들 두 집단의 비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참여자의 직업훈련 자료 및 고용보험 이력 자료를 확보할 경우 추후 분석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3).『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사회, 행정』.

김미란 외(2009).『직업훈련과 직장이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주섭 외(2006).『탈빈곤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의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외(2009).『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2010).「저소득층을 위한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의 성과와 정책과제」.『노동리뷰』60 : 48～72.

_____(2012).「근로빈곤층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연구」.『경제발전연구』18(2) : 159～194.

남재량(2004),『고용촉진훈련의 취업기여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류기락(2012),『취업성공패키지 - 희망리본프로젝트 통합·조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류장수 외(2011).『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대상자 유형별 취업지원 강화 방

안』. 부경대학교.

박성재 · 김화순(2008).「탈북이주민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1 (2) : 71～96.

오영훈(2005).「자활직업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직업교육연구』 24 (3) : 317～341.

_____(2006).「저소득층의 직업훈련효과에 관한 연구」.『직업능력개발연구』 9 (2) : 1～28.

유경준 · 이철인(2008).「실업자 직업훈련의 효과 추정」.『노동경제논집』 31 (1) : 59～103.

유경준 · 강창희(2010).「직업훈련의 임금 효과 분석」.『한국개발연구』 32 (2) : 28～53.

유길상(2010).「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조건」.『노동정책연구』 10 (4) : 39～64.

이병희(2000).「실업자재취직훈련의 재취업 성과에 관한 준실험적 평가」.『노동경제논집』 23 (2) : 107～126.

이병희 외(2010).『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성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 김혜원(2009).「실업급여의 활성화」. 이병희 외(2009),『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외(2012).『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정원오(1997).「저소득계층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1999).「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연구』 14 : 165～190.

채창균 외(2004).『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 및 고용효과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llison(1995).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 A Practical Guide*, SAS Publishing.

Greene(2000). *Econometric Analysis*, Prentice Hall.

OECD(1994). *THE OECD JOBS STUDY : Facts, Analysis, Strategies*, OECD.

Kluve, J.(2006). “The Effectiveness of Europe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IZA Discussion Paper No. 2018.

Martin, J. P.(2000). “What works among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experiences”. *OECD Economic Studies* No. 30.

Martin, J. P. and D. Grubb(2001). “What works for whom: A review of OECD countries’ experiences with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8, 9-56.

〔보론〕 분석에 사용된 변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 특성 변수와 고용서비스 특성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특성 변수로는 연령, 학력, 기초보장수급 여부, 장애 여부 등등과 함께 노동시장 경력과 관련된 변수와 취업과 능력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의 평가를 포함한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진단평가가 끝나는 시점에서 IAP를 수립하는데 이때 상담원은 참여자의 취업능력과 취업의지를 각각 높고 낮은 것으로 평가하여 능고의고, 능고의저, 능저의고, 능저의저의 4가지의 유형을 구분한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짧게는 2주에서 한 달에 걸쳐 이들을 상담하고 평가한 결과이므로 관측되기 어려운 참여자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다.

고용서비스 특성 변수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주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와 개별 서비스의 특성 변수이다. IAP 수립 이후 2단계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2단계 서비스는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스킬훈련 등으로 구분된다. 각 서비스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서비스 수혜 여부는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집단상담 외의 2단계 서비스를 받으면서 집단상담도 함께 받았는지를 포함시켜 집단상담과의 결합의 한계효과를 검증하였다.

2단계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서비스가 직업훈련서비스이다. 직업훈련서비스에는 최대 3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므로 재정당국 및 사업당국에서도 해당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에서도 직업훈련에 대한 상세한 변수를 구성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우선 직업훈련의 수료 여부를 변수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둘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감안하여 한 가지라도 수료했으면 1을 부여하는 1개 이상 훈련수료 변수이며 다른 하나는 대표직종훈련의 수료를 측정한 대표직종훈련수료 변수이다. 직업훈련을 마친 후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자격증취득더미 변수로 포함하였다. 직업훈련기간은 주 단위로 측정하여 4주 이내를 기준변수로 하여 5~8주, 9~12주, 13~20주, 21~32주, 33주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다양한 직종의 훈련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훈련에 집중했는지를 살펴보는 이질직

종훈련더미 변수를 포함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이 훈련에 참여할 경우 공급자 지원방식의 실업자훈련과 수요자 지원방식의 계좌제훈련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대부분 계좌제훈련이지만 2009년에는 실업자훈련이 일부 존재했고 2010년 이후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실업자훈련이 남아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실업자훈련일 때 1의 값을 부여한 실업자훈련더미 변수가 추가되었다. 직업훈련기관의 특성도 구분하여 직업전문학교인지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인지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IAP 수립 후 바로 3단계 서비스로 갈 수도 있고 2단계를 마치고 갈 수도 있는데 3단계의 핵심서비스는 취업알선이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취업알선서비스를 받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의 업무가 과다하여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제약 때문이기도 하다. 2단계 서비스 참여 여부와 3단계 집중알선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를 변수로 포함하였다.[1] 2, 3단계 서비스를 모두 받는 경우 2단계 내의 개별 서비스 참여 더미와 집중알선 더미의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켜 집중알선이 더해졌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훈련직종변수는 두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하나는 KECO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만든 직종변수이며 다른 하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훈련 20가지와 그 외 훈련으로 구분한 21가지 훈련직종분류이다. KECO 중분류의 경우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을 기준변수로 하여 다른 직종을 더미 변수로 투입하였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구성한 직종변수는 남녀를 나누어서 구성하였으며 기준값은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참여한 조리사 직종훈련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은 고용센터에 배치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에 배치되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 민간위탁기관과 고용센터의 상대적 성과

1) 이병희 외(2010) 등에서는 서비스 제공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IAP 수립 이후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않은 1단계 종료형, 둘째는 IAP 수립 이후 2단계 서비스를 받았으나 알선은 받지 않은 2단계 종료형, 셋째는 2단계 서비스를 받고 알선도 받은 2,3단계 연계형이며 넷째는 알선 서비스만 받은 3단계 종료형이다. 2단계 서비스 참여 여부 변수와 3단계 집중알선 여부 변수를 조합하면 이 네 가지 유형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평가를 위해 민간위탁기관 배치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근속 및 경력기간 분석에서도 취업 성과 분석에 사용한 다양한 인적속성 변수와 취업지원서비스 관련 변수를 포함시킨다. 어떤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는지가 향후 취업한 이후의 고용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근속 및 경력기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처의 특성을 통제해줄 필요가 있다. 취업처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를 과대 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처에 대한 정보는 취업성공패키지 DB에서는 기록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DB의 사업체 특성 정보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취업사업장 분석은 고용보험사업장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취업사업장 특성으로서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수준에서의 업종, 근로자 수로 구분한 사업체의 규모를 통제하였다. 사업체 규모는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준값은 100인 이상으로 두었다.

고용보험 DB에는 취업처에서 어떤 직종의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직업훈련을 받은 이들이 훈련 받은 직종의 일에 취업할 경우 좀 더 오랫동안 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직업훈련의 목적이 더 좋은 근로조건과 더 나은 고용의 지속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훈련의 성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직종의 동일성이 미치는 효과는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일을 하는지 여부를 변수로 구성하여 추가하였다. 이때 동일 직종 여부는 KECO 분류의 중분류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부표 1〉 구직기간 2[1] 변수를 이용한 여성의 구직해저드 회귀분석 결과(시간불변변수)

변수명	단순취업			고용보험 취업		
	추정치	카이 제곱	해저드 비율	추정치	카이 제곱	해저드 비율
1개 이상 훈련수료	0.083	0.958	1.086	0.002	0.000	1.002
대표직종훈련수료	0.267 ***	26.443	1.306	0.190 ***	10.766	1.209
5~8주	-0.041	0.378	0.960	0.039	0.314	1.040
9~12주	-0.087	1.746	0.917	0.002	0.001	1.002
13~20주	-0.022	0.114	0.978	0.028	0.164	1.028
21~32주	0.104	2.162	1.110	0.073	0.889	1.075
33주 이상	0.303 ***	7.694	1.355	0.336 ***	8.111	1.399
이질직종훈련더미	0.047	2.072	1.048	0.065 *	3.420	1.067
실업자훈련더미	-0.024	0.057	0.976	-0.027	0.069	0.973
직업전문학교더미	0.059 **	4.171	1.061	0.093 ***	8.601	1.098
여성인력개발센터더미	0.018	0.077	1.018	-0.024	0.117	0.976
자격증취득더미	0.250 **	6.072	1.283	0.146	1.799	1.157
2단계 집단상담	-0.565 ***	141.364	0.569	-0.228 ***	18.076	0.796
2단계 훈련	-0.986 ***	109.567	0.373	-0.561 ***	32.477	0.571
2단계 일경험	0.019	0.015	1.019	0.076	0.238	1.079
2단계 단기취업특강	-0.278 ***	15.754	0.757	-0.067	0.863	0.935
2단계 기타서비스	-0.064	0.019	0.938	-1.518	2.115	0.219
훈련*집단상담	0.655 ***	217.954	1.924	0.260 ***	27.792	1.297
일경험*집단상담	0.149	0.776	1.161	0.324 *	3.363	1.382
단기취업특강*집단상담	-0.006	0.006	0.994	-0.035	0.170	0.966
기타서비스*집단상담	-0.682	2.623	0.506	-0.657	1.134	0.518
2단계참여더미	0.187 ***	19.161	1.205	0.061	1.676	1.063
3단계알선더미	-0.359 ***	164.462	0.698	0.001	0.001	1.001
집단상담*알선	0.175 ***	17.902	1.191	0.174 ***	14.549	1.190
훈련*알선	0.144 ***	13.255	1.154	0.067	2.477	1.069
일경험*알선	-0.154	0.801	0.857	-0.257	2.084	0.773
단기취업특강*알선	0.201 **	6.514	1.222	0.063	0.594	1.065
기타서비스*알선	0.736 *	2.808	2.087	1.740 *	2.776	5.700
상담원보유참여자수	-0.196 ***	49.674	0.822	-0.044	2.302	0.957
상담원보유참여자수제곱	0.067 ***	135.319	1.069	0.017 ***	8.733	1.017
상담원수	-0.109 ***	290.036	0.897	-0.041 ***	40.163	0.960
민간위탁더미	0.065 **	4.577	1.067	-0.041	1.528	0.960

주 : 1) 구직기간 2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부터 취업까지의 기간 중에서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차감하여 구성한 기간을 말함.

2) * : $p<0.1$, ** : $p<0.05$, *** : $p<0.01$.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부표 2〉 구직기간 2[1] 변수를 이용한 남성의 구직해저드 회귀분석 결과(시간불변변수)

변수명	단순취업			고용보험취업		
	추정치	카이 제곱	해저드 비율	추정치	카이 제곱	해저드 비율
2009년더미	0.280 ***	28.905	1.323	-0.038	0.452	0.963
2010년더미	0.115 ***	7.202	1.122	-0.041	0.760	0.959
1개 이상 훈련수료	0.064	0.207	1.066	0.133	0.790	1.142
대표직종훈련수료	0.194 *	3.571	1.214	0.156	2.047	1.169
5~8주	-0.151	2.057	0.860	-0.073	0.423	0.929
9~12주	-0.173	2.621	0.841	-0.074	0.419	0.929
13~20주	-0.111	1.128	0.895	-0.030	0.071	0.971
21~32주	-0.074	0.342	0.929	0.032	0.059	1.033
33주 이상	-0.189	0.319	0.828	0.026	0.008	1.027
이질직종훈련더미	0.046	0.528	1.047	0.098	2.168	1.103
실업자훈련더미	-0.170	1.075	0.844	0.110	0.552	1.117
직업전문학교더미	0.079	1.953	1.082	0.093	2.466	1.098
여성인력개발센터더미	0.325	2.316	1.385	0.044	0.032	1.045
자격증취득더미	0.489 **	5.619	1.630	0.260	1.679	1.297
2단계 집단상담	-0.301 ***	18.394	0.740	-0.133 *	3.101	0.876
2단계 훈련	-0.959 ***	39.584	0.383	-1.123 ***	48.050	0.325
2단계 일경험	-0.354	0.614	0.702	0.117	0.077	1.124
2단계 단기취업특강	-0.277 **	5.617	0.758	-0.160	1.974	0.852
2단계 기타서비스	-0.104	0.021	0.901	0.000	0.000	1.000
훈련*집단상담	0.380 ***	27.328	1.462	0.167 **	4.707	1.182
일경험*집단상담	0.541	1.342	1.718	-0.423	0.807	0.655
단기취업특강*집단상담	-0.166	1.765	0.847	0.011	0.008	1.011
기타서비스*집단상담	-0.254	0.111	0.776	-0.664	0.394	0.515
2단계참여더미	0.153 **	5.964	1.165	0.132 **	3.958	1.141
3단계알선더미	-0.379 ***	106.845	0.685	-0.057	2.412	0.945
집단상담*알선	0.110 *	2.969	1.116	0.048	0.525	1.049
훈련*알선	0.290 ***	18.524	1.336	0.224 ***	10.303	1.251
일경험*알선	-0.299	0.349	0.741	-0.071	0.018	0.931
단기취업특강*알선	0.355 ***	7.848	1.426	0.169	1.885	1.184
기타서비스*알선	-0.218	0.052	0.804	-0.753	0.338	0.471
상담원보유참여자수	-0.201 ***	23.566	0.818	-0.088 **	4.542	0.916
상담원보유참여자수제곱	0.064 ***	57.815	1.066	0.023 ***	7.532	1.023
상담원수	-0.104 ***	130.239	0.901	-0.045 ***	28.245	0.956
민간위탁더미	-0.035	0.596	0.965	-0.088 *	3.417	0.916

주 : 1) 구직기간 2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부터 취업까지의 기간 중에서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차감하여 구성한 기간을 말함.

2) * : $p<0.1$, ** : $p<0.05$, *** : $p<0.01$.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 고용보험 DB, HRD-net 연결자료.

abstract

What Works in Public Employment Services for the Workable Poor?

Hye Won Kim

This study focuses on what kinds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are helpful for the disadvanteged. We combined the Employment Sucess Package DB(ESP DB), Employment Insurance DB(EI DB) and HRD-net DB to study those issues. In comparison to stand-alone training services, the combination of training and job brokerage or in-depth consulting was working better. When the unemployed graduated from the related training and got the similar job, they could work longer in that job and would be attached to labor market.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private sector was worse than that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Keywords : employment performance, public employment service, training, working poor, the disadvantaged, employment sucess package